

진안읍 귀농부부 '황매실'로 새삶 '활짝'

이희춘·안영님씨 1만6천여㎡ 재배로 연 4,000여만원 소득기대

몇 년 전부터 매실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황매실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농 10년차 부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진안군 진안읍 종평마을 이희춘(64)씨와 안영님(63)씨 부부는 지난 2006년도에 진안으로 귀농하여 3년 동안 매실나무를 심어 지금은 1만 6,000여㎡에서 연간 9톤을 수확, 4,000여 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재배하고 있는 매실은 남고, 옥영, 백가하 등 세 가지 품종으로 약 700여 주가 끝고루 심어져 있다.

이들 부부가 생산하는 황매실은 청매실에 비해 향이 무척 진하고 껍질이 나 쓴맛, 신맛이 덜하고 구연산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지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매실은 청매실보다 대략 20여일 정도 늦게 수확한다. 청매실은 6월 초순부터 수확하지만 황매실은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다.

생산된 매실은 1상지(10kg) 5~6만원씩 판매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부터 높은 품질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그 이유는 복숭아나무에 접촉할 경우 매실이 커서 외관상으로는 매우 좋아 보이지만 구연산 등 기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이런 나무는 아예 한 그루도 심지 않았다는 것.

또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실나무에 매실을 접촉한 묘목만을 고집하며 주위 농가에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매실 전도시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20대 젊은 나이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직업군인으로 25년 동안 근무하다 준위로 제대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실나무 2백 여주를 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실에 대해 아는 게 부족했던 이들은 그 이듬해 매실나무를 다시 캐야하는 아픔을 겪었다. 품종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에는 생진 든도 보도 못한 '복숭아씨살이썩병'에 발생되



이희춘 농장주는 "우리 진안에서 생산한 매실은 고품질 재배여서 구연산 등 기능성이 뛰어나고 육질이 단단해 장아찌를 담가도 좋다"고 했다

어 70% 정도의 피해를 입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희춘 농장주는 "우리 진안에서 생산한 매실은 고품질 재배여서 구연산 등 기능성이 뛰어나고 육질이

단단해 장아찌를 담가도 아삭아삭이 좋다"며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마

이산과 연계한 관광체험농장으로 가꿔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서신동, 청소취약지 환경정비

당산로·온고을로 대로변 등 5개 구역

서신동(동장 안규태)에서는 10일 통장단협의회 회원 및 주민센터 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관내 청소 취약지에 대해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는 관내 주요공원과 당산로 및 온고을로 대로변과 인도를 중심으로 총 5개 구역으로 나눠 환경정비를 벌였다.

통장단협의회 천옥선 회장은 "지속적으로 환경정비 봉사 활동을 실시해 머무르고 싶고 살기좋은 서신동을 만드는데 통장단협의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규태 서신동장은 "이렇게 통장단 회원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 서신동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서신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 터널 '졸음운전 예방 알리미' 시설 보강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10일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터널 내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졸음운전 예방 알리미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했다.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최근 빈번한 터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이 밀집된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에서 오수 2차로 등 9개소에 '졸음운전 예방 알리미'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방홍 고순대장은 "터널 내 사고는 터널 진입 시 안전거리 미확보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며 "화물차 속도위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없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임실군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이틀간 성황리 개최

임실군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개최한 '임실군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10일, 임실공설운동장에서 군 게이트볼연합회(회장 박대용)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임실군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12개 읍면에서 60세 이상 게이트볼 동호인 24개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성부와 여성부의 경기가 리그전으로 진행되어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또한, 11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임실군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는 군 배드민턴연합회(회장 함정형) 주관으로 13종목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산시 민원봉사과, 금강노인복지관 급식봉사 활동

군산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시 민원봉사과(과장 추현예) 직원들은 지난 10일 구암동에 위치한 금강노인복지관을 찾아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급식 봉사에서는 민원실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준비한 과일과 식사를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대접하면서 훈훈한 마음을 전달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평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전하기 위해 군산 경로식당, 나눔의 집, 삼성체육원, 청하아파트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을 방문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인후3동 나도지봉사단, 아름다운 화단거리 조성

인후3동(동장 최성식) 나도지봉사단(회장 이숙희) 회원 50여명은 10일 구충목로 600m 구간 가로수 밑에 백일홍 1천여본을 식재해 작은 화단을 조성했다.

이날 나도지봉사단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밑에 흙을 일구고 상토와 마사토를 섞어 화단을 만들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숙희 나도지봉사단 회장은 "무심코 지나쳤던 가로수 밑에 아름다운 꽃이 심어져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거리가 될 것 같다"며 "오늘의 봉사가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부안군 농협발전상생협의회·부안중앙농협, 영농철 일손돕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부안군 농협발전 상생협의회 위원(위원장 유규용)과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순식)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지원을 펼쳤다.

위원들과 직원 20여 명은 상서면 농가(김형섭, 58)를 찾아 일손이 달려 애를 먹던 양파밭에서 양파를 수확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김씨는 "당면 업무추진 중에 농심을 함께 나누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준 부안군 농협발전 상생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유규용 지부장은 "바쁜 업무에도 참여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스리나 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진안군 정천면민의 날 행사 성료

진안군 정천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11일 정천면 체련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안호영 국회의원, 이항로 군수 이항기 군의장과 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및 주민과 향우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정천면 주민으로 구성된 풍물패의 풍물공연과 주민자치 노래교실의 노래공연,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등이 열려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기념식에서 김진태(에향상)씨와 박복성씨(장수상), 이삼순씨(효행상)씨가 면민의 장을 수상했으며, 정천면장을 지낸 배병욱씨(제27대), 김익노씨(제28대), 이용선씨(제29대)와 진안군청 친환경농업과에 근무 중인 정재민씨가 감사패를 받았다.

식후 공연으로는 색소폰 공연과 밴드 공연 등 정천면 주민들의 재능기부 공연으로 신나는 무대가 이어졌으며 오후에는 배구, 줄다리기 등 6개 종목으로 진행된 체육행사와 민요 노래자랑이 실시되어 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의를 다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에코에듀센터장,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강명근 진안에코에듀센터장은 지난 10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항로)에 100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명근 센터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은 에코에듀센터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사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 진안의 꿈나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싶었다"며 "작은 금액이더라도 지역 인재양성에 써 달라"고 말했다.

이항로 이사장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의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계면민의 날 행사 성황리 열려

제26회 장계면민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0일 최용득 장수군수를 비롯해 오재만 군의장과 각 기관사회단체장 향우회원,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계 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장계면이 주최하고 장계면체육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평안민속예술단과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장계무궁화합창단, 장계농가민타 장계풍물·사물단의 신명난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됐다. 또한 마을별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작과 돌아오기 등 6개 종목의 체육행사와 문화·예술공연, 노래자랑이 펼쳐져 화합 한마당 잔치의 분위기를 더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경찰 인권영화제 작품 공모

전주완산경찰서, 7월 15일까지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장하연)는 10일 제5회 경찰인권영화제 단편영화 작품을 오는 7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인권영화제는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시민과 경찰이 함께 영화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인권보호와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영화제 공모는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응모분야는 인권과 관련된 감동적인 단편영화(5~15분)와 스토리가 있는 영화로 완성된 작품이다.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은 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200만원, 감독상·연기상·각본상 각 부문별로 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30만원 특별상으로 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20만원이 수여된다.

/인진수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6년 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59621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출동)	
부회장 김승근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진주시	종양지사	남원지사	고창지사
010-9654-418	010-9088-6674	010-9088-6674	010-99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완주지사	진안지사
010-2333-4791	255-2404	246-6655	438-3054
서신지사	팔복지사	남성지사	정읍지사
22-9417	255-6884	632-0955	539-3367
호치지사	서산지사	순창지사	장수지사
010-6855-9955	445-6157	658-0444	010-3822-8157
	익산지사	부안지사	무주지사
	859-9923	581-0422	010-2300-425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